
碩士學位論文

濟州島方言의 形態素 ‘-서’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文 舜 德

1987年 月 日

濟州島方言의 形態素 ‘-서’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洪 植

文 舜 德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7年 12月

文舜德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87年 12月

STUDIES ON MORPHEME '-sə' IN THE DIALECT
OF CHEJU-ISLAND

Soon-Deok,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Hong-Shik,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87

目 次

I . 緒 論	1
II . 名詞類에 붙는 ‘-서’	4
2.1. 形態素 ‘-서’의 쓰임	4
2.2. 主格 形態素 ‘-서’	5
2.3. 副詞格 形態素 ‘-서’	8
2.4. ‘-서’의 의미 기능	20
III . 動詞類에 붙는 ‘-서’	21
3.1. 形態素 ‘-서’의 쓰임	21
3.2. 連結語尾 形態素 ‘-서’	23
3.3. ‘-서’의 의미 기능	33
IV . 結 論	35
參考文獻	37
Summary	40

I. 緒 論

1.1. 研究目的

國語學은 전통, 구조주의문법 이후 1960년대에 소개된 변형·생성문법 등 言語學 理論의 도입과 연구에 따라서 格에 관한 研究가 활발해졌다. 초기에는 格助詞를 職能에 따라 분류하는 정도의 研究이었으나, 후기 格文法의 소개로 表面上으로는 形態가 같더라도 심층에 있어서는 意味를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內面格(심층격)의 研究가 중심을 이루었다. 한편 接續法으로 불리어온 連結語尾도 초기에는 다분히 意味論的인 분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후기에 와서는 생성의미론의 입장에서 研究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共通語¹⁾에서 시도한 理論 및 分析 方法을 濟州島方言에 적용했을 때 명사류에 붙는 ‘-서’와 동사류에 붙는 ‘-서’를 同一 觀點에서 다룰 수 있는 지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1.2. 研究 範圍 및 構成

格助詞와 連結語尾에 붙는 形態素 ‘-서’는 그 실현되는 환경이나 연결관계가 다르지만 ‘이시다’에 기원을 둔 ‘서’의 現代語를 ‘-서’로 보아서 濟州島方言에 나타난 形態素 ‘-서’의 쓰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a. 정의서 죽 쭈단 사름
- b. 솟도계서 기과하시딴.
- c. 산 속에서 놀단 낭가.
- d. 도령을 몰우터서 누리왕.
- e. 것도 이상하다 호명서도.
- f. 살 살암십서.
- g. 사름이 불쌍해서.

위 例에서 보듯이 形態素 ‘-서’가 체언에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格助詞나 語尾와 연결되어서 실현되는 두 경우를 볼 수 있다. 形態素 ‘-서’가 [+처소]의 意味資質을 가진 경우와 終結語尾로 쓰인 경우에는 단독 形態素로 실현되어서 ‘존재’의 意味를 지니지만 連結語尾인 경우에는 단독 形態素로 실현되지 않는다. 共通語에서도 명사류와 동사류에 쓰이는 ‘-서’를 同一 觀點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濟州島方言에서도 形態素 ‘-서’를 형

1) 소위 “표준어”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여기서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方言과 대등한 관계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

태와 의미 기능면에서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

다음은 본고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장에서는 1) 形態素 ‘-서’가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2) 格助詞와 연결된 경우 즉 ① 主格 表示의 ‘계서’, 단체 主格 表示의 ‘에(이·의)서’의 쓰임과 의미 기능에 대해서, ② 處格 表示의 ‘에(이·의·예)서’와 ‘濟州島方言의 特異 形態인 ‘디서’, 資格格 表示의 ‘로서’ 등의 쓰임과 의미 기능을 살핀다. 3장에서는 1) 形態素 ‘-서’가 단독으로 실현되는 終結語尾에 대해서, 2) 連結語尾 形態인 ‘아서’, ‘명서’, ‘아뉘(두)서’ 등의 쓰임을 통해서 ‘-서’의 의미 기능을 알아 본다. 4장은 결론 부분으로써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끝맺는다.

1.3. 지금까지의 研究

濟州島方言에서 形態素 ‘-서’에 대한 先行 研究는 독립해서 다루어진 경우는 없고 格助詞인 경우와 ‘있다’의 活用形인 경우에서 다룬 정도이다.

1) 姜根保(1972, 1978)는 집단을 表示하는 主格 形態로 ‘-서’, ‘이서’, ‘에서’ 등을 들고 있으며 그 機能은 處格으로 表示되어서 共通語와 일치점을 보인다. 處格 形態인 ‘-서’, ‘이서’, ‘에서’ 역시 모두 同一 機能으로 체언에 연결되어 ‘있다(有)’의 方言形인 ‘이시, 시’에서의 전성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존재’의 뜻을 유지하는 ‘-서’는 보조조사와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나, 랑’-‘-서’와 ‘이서’는 名詞에 연결되어 在格 구실의 후치사로 보고 있다.

2) 李崇寧(1978)은 終結語尾인 경우 中稱에서 ‘-서’를 다루고 있는데 先語末語尾에 연결된 形態素 ‘-서’는 단독으로 실현되어서 서술형과 의문형인 경우에는 ‘있다’의 意味를 지닌다. 시제가 과거인 경우에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

3) 玄平孝(1985)도 역시 終結語尾인 경우 ‘-서’를 다루고 있는데, 미완료 존속상인 ‘-안서 / -엄서’, 완료 존속상인 ‘-아서 / -어서’에서 形態素 ‘-서’를 추출할 수 있다. 이 때의 ‘-서’는 ‘있다’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命合法인 경우의 ‘-서’는 ‘있다’의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비서’와 같이 존칭의 경우에 쓰인다.

1.4. 研究 對象

본고는 濟州島方言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原語民의 發話 內容을 대상으로 하는데, 본고에 인용된 例文들은 現地 調査를 하지 않고 1950-1980년대까지 調査, 記錄된 資料에서 引用했다. 引用된 文獻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引用된 資料의 出處는 괄호안의 略號로 처리한다.

- (1) 金榮敦(1981),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민요).
- (2) ——·玄容駿·玄吉彦(1985),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실화).

- (3) 朴用厚(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제방).
- (4)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新聞社出版部. (방언).
- (5) 秦聖麒(1979). 「南國의 民謠」. 正音社. (남국).
- (6) ——(1982).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민담).
- (7)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무속).
- (8) ——·金榮敦(1980). 「韓國口碑文學大系」. 9-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구비9-1).
- (9) ——·——(1981). 「韓國口碑文學大系」.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구비9-2).
- (10) ——·——(1983). 「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구비9-3).

끝으로 본고에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論文에서 引用되는 것은 그대로 따르고 그외는 現代 言語學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이다.

| | : 선택되어 나타남.

* : 비문법적 문장임.

? : 자연스럽지 않거나 어색한 문장임.

+ : 가능함.

- : 불가능함.

II. 名詞類에 붙는 ‘-서’

종래 助詞라 불리어온 것 중에서 格 範疇를 表示하는 格助詞를 중심으로 하는데, 최 현배 (1978)의 格助詞 分類를 중심으로 하고 用語도 그대로 사용한다. 主格 形態와 副詞格 形態 중에서 處格과 資格格 表示 形態素에 연결된 ‘-서’를 濟州島方言에서 추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形態素 ‘-서’가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다룬 다음 格 形態와의 연결관계 또는 補助詞²⁾와의 연결관계 등을 다루겠다.

2.1. 形態素 ‘-서’의 쓰임.

- (1) a. 이승서 복숨을 바칠터야? (무속: 242)
 (이승에서 복숨을 바치겠느냐?)
 b. 나는 육지에서 왔는데 풀이 죽게 되니까. (구비 9-2:737)
 (나는 육지에서 왔는데 풀이서 죽게 되니까.)
 c. 울도 담도 없는 집서 시집살일 흥는다. (구비 9-3:634)
 (울타리도 담장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니까.)
 d. 그더서 혼자 좌정하여 삼태다. (무속: 658)
 (그곳에서 함께 座定해서 삼았읍니다.)
 e. 저 독은 어디서 우는 독이리까? (무속: 124)
 (저 닭은 어느 곳에서 울고 있는 닭입니까?)
 f. 난 아무되서 온 사람인데. (구비 9-2:616)
 (나는 아무 곳(데)에서 온 사람인데.)
 g. 이되서 도놀당가자. (민요: 188)
 (이곳에서 노닐다가 가자.)
 h. 벨 부모가 저더서 죽엄맨해도. (구비 9-3:53)
 (어떤 부모가 저기서 죽어간다고 해도.)

우선 (1)a.~c.에서 形態素 ‘-서’는 先行 名詞가 [+장소]의 意味資質을 지니고 있으며 ‘-에 있어’의 뜻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보면 (1a)는 動作이 행해지는 空間的인 背景을 나타낸다. ‘이승에 살면서’의 意味로 해석이 되니까 이때의 ‘-서’는 存在의 意味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b)는 ‘육지에 있다가’ 즉 육지라는 일정한 場所에서 主體의 行爲가 이동함을 나

2) ‘補助詞’라는 用語는 補助助詞, 특수조사, 한정조사 등의 異稱이 있으며, 形態素 ‘-서’를 앞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後置詞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말본」의 用語를 그대로 사용한다.

타내므로 ‘-서’는 由來 또는 出發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1c)는 行爲가 이루어지는 空間과 狀態 持續의 意味를 나타낸다. 이때의 ‘-서’는 處所의 意味를 지닌 ‘에’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1)d.~h.를 보면 代名詞에 ‘-서’가 연결된 形態이다. 즉 ‘디’는 ‘곳·데·처’를 나타내며 여기에 ‘-서’가 연결되어 구체적인 場所를 나타내고 있다. (1d)는 서술어가 動作 動詞이며 과거 시제가 쓰여서 狀態 持續의 完료를 나타내며 (1e)는 닭이 우는 畧 즉 ‘由來’의 意味를 나타낸다. (1f)는 主體의 所在地를 나타내므로 ‘-서’는 ‘由來’를 나타낸다. (1g)는 行爲가 이루어지는 空間을 나타내며 狀態 持續 즉 ‘存在’의 意味가 있다. (1h)는 죽는 場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죽다’라는 狀態動詞와 쓰여서 處所를 나타낸다.

[+장소]의 意味資質을 지닌 先行 名詞에 연결된 形態素 ‘-서’는 存在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은 格 表示 形態素와 연결되는 경우를 다루겠다.

2.2. 主格 形態素 ‘-서’

名詞類에 붙어서 그 文章의 主體가 되게 하는 主格 表示 形態素에는 존대를 나타내는 ‘께서, 께서’와 집단(단체)을 表示하는 ‘에서’ 등이 현재 共通語에서 쓰이고 있다. 濟州島方言에서도 共通語와 그 쓰임이 同一하다.

그러면 例文을 통해서 이런 形態들의 의미 기능을 고찰하겠다.

1) ‘께서’

- (2) a. 아녀 조방장님께서 남녀가 유별하니, (설화:790)
 (아녀 조방장님께서 男女가 有別하니,)
 b. 소도께서 기와하시면 상지하겠쥬다.(민담:56)
 (使道께서 起座하시면 相地하겠쥬다.)
 c. 저 스피께서 이겨 제주 들어오랑 첫날이고 하니, (설화:737)
 (저 使道께서 예, 제주도에 들어와서 첫날이고 하니,)

(2)의 ‘께서’는 先行 名詞가 [+존대]의 意味資質을 지닐 때 실현된다. 그러나 濟州島方言에서 家族의 호칭에는 그 形態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아방, 어멍, 하르방, 할망’ 등 어휘 자체로 끝나는데 이것은 敬語法의 未分化로 볼 수 있다.

‘께’는 與格 表示 形態素인데 濟州島方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께서’는 行爲者이면서 行爲가 發生하는 空間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즉 [+유정], [+장소]의 意味資質을 지닌다. 그러나 과연 處所 즉 存在의 意味가 ‘-서’ 때문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2) '에(이, 의)서', '-서'

集團, 團體의 名詞에 연결되어서, 主語의 기능을 하는 形態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3) 木실에선 마흐레청을 막행하나, (민담:28)
(마을에서는 外兵을 막으려고 하나.)

例에서 '木실'은 [+장소], [-유정], [+집단]의 意味資質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에서'가 연결되어서 主語의 기능을 하고 있다. '木실'에서 行爲의 主體는 '마을사람들'이 된다. 따라서 '에서'는 '處所十人'을 기본적인 意味로 갖는다.

- (4) a. 관이시도 손을 문선 찢찢해는 관이뻬쑤다.(민담:28)
(관에서도 손을 문서서 찢찢해는 형편이었습니다.)
b. 나라이선 정례를 누리왕쑤다.(민담:99)
(나라에서는 旌禮를 누리었습니다.)

例에서 '관, 나라'는 [+장소], [-유정], [+집단]의 意味資質을 지니며 '에서'의 변이형태인 '이서'가 연결되어서 主語의 기능을 한다. (4a)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관'이며, (4b)의 '나라'는 '나라의 책임자'라는 뜻이며 行爲의 主體가 된다. 그리고 動作의 空間的 領域이기도 하다.

- (5) a. 거 큰 나라의서 잘 알아가지고 흥는 게고, (구비 9-3:183)
(뽀 큰 나라에서 잘 알아지 흥는 것이고.)
b. 모관의서도 죽 쑤어서라, (민요:33)
(모관에서도 죽을 끓였더라.)

역시 '나라, 모관'은 [+장소], [-유정], [+집단]의 意味資質을 지니며 '에서'의 변이형태인 '의서'가 연결되어서 主語의 기능을 한다. '나라의서', '모관의서'는 動作의 空間的 領域을 내포하고 있다.

- (6) a. 정의지 죽 쑤단 사람, (민요:32)
(旌義에서 죽 끓이던 사람.)
b. 서당국서 솟아난 큰부인님, (부속:599)
(서당국에서 솟아난 큰 부인님.)
c. 강남서도 놀아 온 새야, (민요:101)
(강남에서도 날아 온 새야.)

- d. 서월서도 날아 온 생이, (남국:79)
(서울에서도 날아 온 새야,)

(6)은 處格 表示 形態素 '에, 이, 의'가 생략되고 '-서'만이 실현된 경우이다. 形態素 '-서'가 생략되지 않고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독특한 意味를 지니며 文法的인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6)' a. 정의{에서, *이서, *의서, 서} 죽 쭉단 사름,
b. 서당국{에서, 이서, ?의서, 서} 솟아난 큰부인님,
c. 강남{에서도, *이서도, *의서도, 서도} 날아 온 새야,
d. 서월{에서도, *이서도, *의서도, 서도} 날아 온 생이

(6)에서 보듯이 '에서'와 '-서'는 수의적으로 쓰이며 자유롭게 선택된다. 그외에 '이서'와 '의서'는 제약된 분포를 보인다. 處格 表示 形態素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존태의 '께서'는 자유롭게 主語 자리에 쓰여서 主格助詞로서의 구실은 하지만 '에서'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정도인 것이 감추어져 있어서³⁾ 處格 表示 形態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에서'는 主格 表示의 기능은 하지만 主格助詞라고는 할 수 없다.

- (7) a. 하르방 오람수다.(세방:395)
(할아버지께서 오십니다.)
b. 브름 불달 비 온다.(세방:395)
(바람이 불다가 비가 온다.)
c. 해 지거니 돛 든다.(세방:395)
(해가 저자마자 닻이 든다.)

(7)은 主格助詞가 생략된 문장이다. 그러나 '에서'의 생략은 볼 수 없다. 濟州島方言에서 主格助詞는 생략 가능하지만 處格助詞의 생략은 불가능하다. 결국 '에서'는 'NP₁이/가-NP₂에(이)서-VP'⁴⁾의 形式에서 主語가 생략된 문장으로 본다면 'NP₂'句는 단지 主語의 기능을 할 뿐이지 '이·가'처럼 언제나 主格 表示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수사에 연결되는 예인 경우

3) 李翊燮·任洪彬(1985), 「國語文法論」, 學研社, p.136.

濟州島方言에서도 共通語에서와 같이 단체의 '에서'가 주어의 구실은 하지만, 主格 表示 形態素인 '이·가'와 同一하게 처리할 수 없으며, 단체(집단)에서만 사용된다.

4) 姜錫희(1983), "제주도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

- (8) a. 돌이서 걸어 갔다.
 (돌이서 걸어 가고 있다.)
 b. 다섯이서 살아가게 하였주.
 (다섯이서 살아가게 했다.)

예에서 ‘-서’는 主格의 기능을 나타내므로 主格形 ‘가’로 바꾸어도 文意가 같다.⁵⁾ 그러나 필자가 참고한 자료에서 人數稱主格助詞⁶⁾는,

응, 혼자서. (구비9-2:166)

밖에 실현되지 않았다. (3)-(6)에서 ‘에서’(이서, 의서, 서)가 主格으로 쓰일 때는 行動性의 서술어가 쓰인다. ‘에+서’로 분리한다면 形態素 ‘-서’는 미약하나마 ‘存在’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으며 ‘에’는 空間的 領域 즉 장소(처소)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고 가정할 수 있다.

2.3. 副詞格 形態素 ‘-서’

副詞格助詞는 體言 뒤에 연결되어서 副詞처럼 用言을 수식하며 格助詞의 분류시에 그 하위 분류는 意味面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處所格, 處格, 在格, 位格, 在所格, 位置格’ 등 다양한 名稱을 지닌 ‘處格’을 중심으로 하고 資格의 기능을 나타내는 形態에 대해서도 고찰하려고 한다. ‘處格’이란 일반적으로 處所性의 명사 뒤에 첨가되어 서술어의 動作·狀態 등에 일어나는 時·空間的 處所를 나타낸다.⁷⁾ 共通語에서 사용되는 ‘에서’ 외에 中世語의 잔영을 지닌 ‘이서, 의서, 예서’와 濟州島方言의 特異 形態인 ‘디서’의 쓰임을 통해서 ‘-서’의 의미 기능을 추출해 보겠다.

1) ‘에서’

- (9) a. 호로 춘야은 꿈에 어떤 할망이 나오란, (민담:25)
 (하루 저녁은 꿈에 어떤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b. 여스가 이 스실을 나라에 보고하난, (민담:133)
 (御使가 이 事實을 나라에 보고하니까,)
 c. 차귀 김훈장은 장성호연 문하에 제자들도 하경 두언, (민담:150)
 (차귀섬의 김훈장은 장성에서 門下에 弟子들도 많이 두고.)

5) 姜根保(1978),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 『논문집』 10, 濟州大學, p. 65.

6) 高永根(1968), “主格助詞의 한 종류에 대하여”, 『南基心外, 1981, 所收』, p. 112.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지 조사를 통한 확인의 비비이다.

7) 姜正희(1983), op. cit., p. 48.

- d. 흥번은 처녀가 마당에 앉아네. (철화:209)
(한번은 처녀가 마당에 앉아서,)
- e. 강남가도 식들에 온다.(남곡:49)
(강남에 가도 서달이면 돌아온다.)

예에서 ‘에’의 先行名詞는 [+장소]의 意味資質을 지닌다. ‘에’는 ‘나오다, 보고하다, 오다’ 등의 動作動詞 構文에서는 行爲의 指向點을, ‘두다, 앉다’ 등의 狀態動詞 構文에서는 어떤 對象의 屬性을 결정해 주는 空間的 背景의 意味를 갖는다.⁸⁾ 그렇다면 上例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9a)는 ‘꿈에’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나오다’란 動作動詞를 서술어로 취할 때 ‘에’는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지칭한다. 또한 어떤 목적(대상)을 향한 이동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9b)에서 行爲者는 御使이며 그 대상은 나라이다. ‘보고하다’란 動作動詞를 서술어로 취하는 ‘에’는 行爲의 指向點을 意味한다. (9c)는 非移動動詞 ‘두다’의 意味資質로 인해서 ‘에’는 [+장소]의 意味資質을 지니며 어떤 대상의 속성을 결정해 주는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이때 ‘에’는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9d)의 ‘에’는 ‘앉다’라는 狀態動詞의 意味資質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사건, 즉 行爲의 空間을 의미한다. (9e)의 ‘에’는 先行名詞의 意味資質에 의해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며 서술어의 意味資質에 의해서 行爲의 移動 및 指向點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는 處所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에’는 장소가 어떤 기준이고 이 기준에 주어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에’의 의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은 한 문장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의 공간을 의미하는 ‘에’에 形態素 ‘-서’를 연결한 ‘에서’의 실현 여부를 보고자 한다.

(9 a') * 하루 춘야은 꿈에서 어떤 할망이 나오란,

이 예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추상적인 명사에 ‘에서’가 연결되면 ‘꿈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나타낸다. 즉 處所와 存在의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예에 쓰인 ‘에서’는 出發(始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9 b') 어스가 이 소식을 나라에서 보고하난,

이 예는 御使가 行爲의 主體가 되며 ‘나라’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장소이다. 보고를 받는 쪽은 국민이 되므로 ‘에서’는 行爲의 移動 즉 出發의 의미를 지닌다. (9b)와 비교

8) 成光洙(1980), 「國語助詞의 研究」, 螢雪出版社, p.487.

9)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의미”, 한글 173·174어우름, 「한글학회」, p.15.

해 볼 때 정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御使는 나라를 대표하는 관리로서 나라의 행위를 대행하는 임무자를 뜻한다.

(9 c') * 차귀 집훈장은 장성 孝연 문하에서 제자들도 하영 두었,

(9c)에서 '에'는 空間的 背景을 의미하는데 (9c')의 '에서'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상실한 출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에서'는 상태 지속 즉 存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9 d') * 혼번은 처녀가 마당에서 앉아네,

이 예에서 '에서'는 서술어가 狀態動詞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부적합하다. 즉 '마당에서'하면 출발의 의미가 있는데 '마당에'라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므로 처소의 '에'가 적합하다.

(9 e') * 강남강도 석들에서 온다.

예에서 '석들에'는 '삼개월만에' 또는 '삼개월이 지나면'으로 해석된다. '에'는 [+시간]의 의미자질을 지니는데 '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간]인 경우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출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 (10) a. 께섬 유네 밧에서 논다.(민요 :33)
(온 섬의 遊女들이 밧에서 논다.)
b. 산 속에서 놀던 냥가? (민요 :318)
(산 속에서 놀던 나무냐?)
c. ㄹ새 영문에서 사발통문이 와신티, (민담 :261)
(조금 전에 관청에서 사발통문이 왔는데,)
d. 뽕즈낭 칼에서 삼성궤가 즘을 잠시난, (무속 :167)
(뽕나무 밑에서 三兄弟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e. 너는 인간에서 부모 효심허었느냐? (무속 :219)
(너는 인간 세상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였느냐?)
f. 그 남에서 울음을 울어, (구비 9-1:93)
(그 나무에서 울음을 운다.)
g. 저 사람은 대가 나는 지주에서 나셔도, (민담 :251)
(저 사람은 대나무가 自生하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도,)

(10a)는 '여자들이 밧에서 또는 밧에 있어서 논다'로 해석되며 行爲의 主體는 '유네'이다.

‘에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적인 배경을 의미하며 특히 ‘-서’는 ‘존재’(滯留)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에서’는 [+장소]의 선행 체언에 붙으며 후행하는 서술어가 동작동사이어야 한다. (10b)의 ‘에서’는 ‘산’이라는 특정한 공간적 배경을 가리키며 행위의 주체인 ‘나무’의 屬性으로 인해서 처소와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 즉 ‘산 속에서 자생하던 나무’로 해석된다. (10c)에서 ‘오다’는 어떤 대상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移動을 의미한다.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닌 ‘에서’는 어떤 소식이 대상을 향하여 오는 始發의 의미가 있지만 과거 시제와 쓰여서 소식의 완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발을 뜻하는 것은 서술어의 특성에 의한 것이며 ‘-서’에는 ‘존재’(滯留)의 의미가 있다. (10d)의 ‘에서’는 動詞句의 行爲가 일어난 지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팽나무 밑에’ 하면 막연한 처소이지만 ‘팽나무 밑에서’ 하면 구체적인 처소를 나타낸다. 여기서도 ‘-서’는 상태 지속 즉 ‘존재’(滯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e)는 행위의 주체가 과거 인간 세상에서 한 행위의 결과를 묻고 있는 例이므로 ‘에서’는 [+장소], [+존재](滯留)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 이때의 ‘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전체 배경¹⁰⁾을 나타낸다. (10f)에서 행위의 주체는 [+유정]이며 ‘남’은 동사구의 공간적 배경을 가리킨다. ‘에서’는 올 수 있는 장소 즉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 (10g)는 출생지가 제주임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근원을 의미한다.

다음은 ‘-서’의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에’와 ‘-서’를 각각 생략해 보자.

(10 a’) 제섬 유네 밧{*에, ?서} 논다.

‘에’는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지니지만 여기서의 ‘에’는 지향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존재의 의미 기능을 하는 ‘-서’가 생략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서’만이 연결되었을 때는 어색하지만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처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후행하는 서술어의 영향이기도 하다.

(10 b’) 산 속{*에, 서} 놀단 나가

어색하지만 ‘-서’가 연결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은 形態素 ‘-서’가 산 속이라는 장소와 존재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고 본다.

(10 c’) 국제 영문{*에, 서} 사발통문이 와신다.

例에서 ‘에’만이 실현되면 도착점을 나타낸다. 소식이 도달하는 곳이 영문이라는 뜻이다. (10c)의 출발의 의미와는 정반대이다. ‘-서’만이 연결되면 영문이라는 처소에서 이탈의 의미를 지닌다.

10) Ibid. p. 28.

(10 d') 쟁주남 앞[?에, 서] 삼성제가 즈음 잠지난,

예에서 '에'는 막연히 위치를 나타내지만 '-서'가 실현되면 위치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10 e') 너는 인간[*에, ?서] 부모 요심어엿느냐,

예에서 '에'가 선택되면 행위의 대상이 '인간 세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소의 의미가 있어야 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形態素 '-서'가 쓰이면 인간 세상에서 한 行爲의 空間的 背景과 상태 지속 즉 存在의 의미도 있다.

(10 f') 그 남[에, 서] 웃음을 울어.

(10e')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남에' 하면 막연한 위치를 나타내지만 '-서'가 연결되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위치 및 지속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10 g') 서 사람은 내가 나는 지주[에, 서] 나지도,

예에서 '에'와 '-서'는 處所를 나타내지만 출생지인 근원을 나타내고 있다.

(10)에서 보았듯이 '에'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지만, 所在 즉 存在의 의미가 강한 '-서'가 생략되었을 때 그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약해진다. 形態素 '-서'는 출발, 원인, 근원의 意味를 보이고 있으며, 處所나 方向을 나타내는 '에'는 문맥의 제약을 받는다. 위에서 形態素 '-서'가 실현되는 경우는 선행 명사가 位置, 處所의 意味를 나타내고 있으며 후행하는 動詞에 따라서 狀態 持續의 意味를 강조하고 있다.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닌 '에'가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된다. 반복되지만 '에'는 도달점, 상태, 지속의 점을 나타내며 '에서'는 출발지, 동작이 일어나는 영역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공간적 영역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形態素 '-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좀 더 그 쓰임을 보겠다.

(11) a. 방[에, ?에서] 이불 깔라.

(방에 이불을 깔라.)

b. 바닷[에, 에서] 나불 일엄지냐.

(바다에 파도가 일고 있느냐)

c. 차통[에, 에서] 다방 〇적오라.¹¹⁾

(재통에 담아 갖고 오라.)

11) 鄭雲澤(1983), "濟州島方言의 格語尾研究", 濟州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20.

(11a)에서 '질라'는 명령형이긴 하지만 '에'는 장소의 의미를 지니며, '에서'는 방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서 어색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동작이 일어나는 공간적 영역을 의미한다. (11b)는 현재 진행중인 서술어가 쓰여서 '에'는 상태 지속을 요구하며 물론 '바다'라는 선행 명사의 의미자질로 장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에서'가 선택되면 구체적인 동작이 일어나는 곳과 행위의 출발지를 내포하고 있다. (11c)의 '에'는 특정한 그릇을 지정하고 일정한 점을 나타내며, '에서'가 쓰이면 '채롱에 담겨져 있던 물건을 다른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에서'는 행위의 移動 즉 이탈의 의미를 내포한다.

지금까지 '에'와 '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考察해 보았다. '에'와 '에서'가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각 고유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處所의 'N에서' '-서'의 의미는 일단 '존재'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것은 후술하겠다.

2) '이서'

- (12) a. 그날그날 바다가 나갈 케길 나가사, (민담:180)
 (하루하루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아야.)
 b.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상 한루산이 돛사냥만 땡겼쭈다.(민담:169)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한라산에 배지 사냥만 나냈습니다.)
 c. 연날 옛적 창고내 앞이 군산이 솟아날 뻬, (민담:125)
 (연날 옛적에 창천리 앞에 군산이 솟아날 뻬에.)
 d. 고전적은 매달 선영네 집이 왕 조반만 먹으민. (민담:53)
 (高典籍은 매달 현령네 집에 와서 아침밥을 먹으민.)

濟州島方言에서 處格 表示 形態素로 '에'와 '이'가 쓰이지만 그 선택 제한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 그러나 (12)의 '이'를 '에'로 대체해도 문장이 성립하며 '에'의 쓰임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면 '이'는 어떤 의미 기능을 지니는 지 살펴보자.

(12a)의 '이'는 바다로 향한다는 指向의 意味와 고기를 낚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12b)의 '이'는 사냥하는 장소가 한라산이라는 도달, 목표점을 나타낸다. (12c)의 '이'는 군산이 솟아날 곳이 창천리 앞이라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 (12d)에서 '이'는 행위자가 움직이는 대상이 집이라는 뜻으로 도달, 목표의 의미를 지닌다. '에'와 '이'의 쓰임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濟州島方言에서는 '이'도 '에'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서'가 연결된 '이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13) a. 그 애길 그냥 집에서 길쭈쭈다.(민담:227)
 (그 아기를 그대로 집에서 키워줍니다.)

- b. 새까흰 친정에서 올 때에, (민담:223)
(새색시는 친정에서 올 때에,)
- c. 그르후젠 그 아이가 정성침에서 살게 돼여신디, (민담:216)
(그후에는 그 아이가 정승네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 d. 오라방 좃이레 바당에서 육지엿 나오곡 홉네다.(민담:48)
(오빠를 찾으러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곤 합니다.)

예에서 (13a)의 ‘에서’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 즉 아기를 키운 곳이 집이라는 사건의 공간과 행동의 완료를 나타낸다. 이는 서술어의 영향이다. (13b)는 ‘오다’의 근원이 친정이므로 動作의 移動 즉 由來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3c)의 ‘에서’는 아이가 산 곳이 정승집이라는 공간적 배경 즉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니며 상태 지속과 ‘정승집에 있어서’처럼 존재의 의미 기능도 나타낸다. (13d)는 ‘바다에서 육지로 나온다’는 행동의 이동을 나타내며 여기서 ‘에서’는 출발 즉 시발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로 향한다’는 방향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지만 동작이 행해지는 處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에서’도 ‘에서’와 同一한 의미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집, 친정, 바당’에 후접하는 ‘에서’는 공간적 위치를 드러내는 處格의 表示로써 이를 지배하는 서술 용언은 |-isə|, |-esə|가 同一¹²⁾ 하지만 분포상의 제약이 따른다. ‘에’와 ‘이’의 분포는 제약적이지만 ‘所在, 存在’의 의미를 지닌 形態素 ‘-서’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13)에서 處所格을 表示하는 ‘이’가 생략되고 ‘-서’만이 쓰였을 때 — 집서, 친정서, 정승집서, 바당서 — 도 의미는 동일하다. 이것은 [+장소]의 의미자질을 표시하는 ‘이’에 그 존재의 의미가 강한 ‘-서’가 연결되어야만이 ‘에서’의 여러가지 의미 — 근원, 출발, 향진, 처소 등 — 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물론 선행 명사나 후행하는 동사의 특성에 의해서 위와 같은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서’도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의서’

處格 表示 形態素는 ‘에, 이’ 외에 ‘의’로도 실현된다.

- (14) a. 하 이거 우리 집의 난더웃이 감은 암췌여, (무속:199)
(아 우리 집에 난데 없이 검은 암소여.)
- b. 어떤 새는 낮의 울며, 어떤 새는 밤의 울리, (무속:901)
(어떤 새는 낮에 울며, 어떤 새는 밤에 울까.)
- c. 석술적의 불르단 놀레, (민요:5)
(세살 때에 부르던 노래,)
- d. 설간의 가서 빛을 빼왔느냐? (구비 9-1:126)

12) 姜根保(1978), op. cit., p.77.

- (절에 가서 무엇을 배웠느냐?)
 e. 거 어떻~~하~~연 아침의 지붕우의 올라 갔어? (설화 :84)
 (무슨 일로 아침에 지붕위에 올라 갔어?)

(14a)에서 ‘의’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니며 집에 검은 암소가 없었는데 들어왔다는 도착점을 나타내고 있다. (14d)는 ‘의’가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며, 행위 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향의 의미 기능을 한다. (14) b.c.e에서 ‘의’는 [+시간]의 의미자질을 지닌다. 시간을 표시하는 ‘의’는 선행 체언이 [+시간]의 의미자질을 지녀야 한다. ‘집, 바당, 낮, 밤’ 등의 명사에 연결되는¹³⁾ 處格 形態素 ‘의’에 연결되는 ‘-서’의 用例를 보면

- (15) a. 아버지가 배 우희서 죽어시니 그거 알라고, (설화 :592)
 (아버지께서 배 위에서 돌아가셨으니 그것을 알라고,)
 b. 내 앞의지 씨름이라도 한번 ~~하~~라 보게, (설화 :592)
 (내 앞에서 씨름이라도 한번 해 보아라,)
 c. 성님은 밭의지 김질 메엄수다.(재방 :395)
 (형님은 밭에서 김을 매고 있습니다.)

例에서 (15a)의 ‘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특정한 場所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과거 시제 ‘었’이 쓰여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므로 ‘우희서’는 한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장소)을 나타내고 있다. (15b)의 ‘의서’는 동작동사를 서술어로 취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 즉 處所를 나타낸다. 즉 ‘의서’는 ‘~에 있어 또는 ~에 있으면서’의 뜻을 지닌다. 이때는 存在를 내포한 狀態 持續으로 해석된다. (15c)도 역시 서술어가 동작동사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15b)와 같은 뜻을 지닌다. 물론 ‘의서’는 장소를 나타내지만 存在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서’의 基本 意味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서’를 ‘存在’ 즉 ‘在格’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以上에서 考察한 形態 外에 “|終聲母音” 다음에 쓰이는 ‘예’形態가 있는데 이는 中世 國語의 잔영이 濟州島方言에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개기장서 예청은 그 소리에 그만이 사난, (민담 :181)
 (고기장수 부인은 그 소리에 가만히 사니까.)

이 例에서 動詞句의 行爲를 한정하는 ‘예’는 원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그 부르는 소리 때문에 동작이 멈춤’을 나타낸다.

13) 玄平孝(1985), “附錄 I : 格語尾 및 活用語尾”,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二友出版社, p. 621.

- (17) 올래에서 놀단, ¹⁴⁾
 (골목길에서 놀다가.)

예는 서술어가 동작동사이므로 '에서'는 行爲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낸다.

4) '더서'

다음은 濟州島方言의 特異한 處格 表示 形態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18) a. 쫓다 동기질 못호난, (민담:37)
 (가에 다니지를 못하니까,)
 b. 서천꽃밭다 나무역 드리레 가자, (무속:134)
 (서천꽃밭에 나비 쫓으러 가자.)
 c. 솟 땃다 불 술마가난, (민담:190)
 (솟 밑에 불을 빼어가니까,)
 d. 왜 못다 불은 아니 서진영 훑네다, (민담:173)
 (소의 얼굴에 불은 아니 뿌리다고 합니다.)
 e. 그 영혼들 차마 부모를 僽ᄃᆞᆫ 위에 놓히리야, (민담:170)
 (그런들 차마 부모를 僽ᄃᆞᆫ 위에 놓히리야.)

예에서 (18a)의 '디'는 移動의 의미를 포함한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니며, 동사구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18b)는 동작동사의 의미자질로 해서 행위의 이동 즉 지향점을 의미한다. (18c)는 동작이 일어나는 공간을 지칭하며 이때 '디'는 행위의 주체가 막연히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불을 지피는 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밑'이라는 場所를 나타낼 뿐이다. (18d)는 행위자가 '소의 낮'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行動을 의미한다. '디'는 處所性을 지니며, 指向點을 나타내기도 한다. (18e)는 '놓히다'란 行爲가 일어나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물론 '디'는 처소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行爲主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티'는 대상이 된다. (18)에서 보면 '디'는 선행 NP의 末子音이 /t/系이거나 동시에 원래 語末에 /h/를 지녔던 NP에만 연결되는 제약 조건을 가지면서 處格의 기능을 한다.¹⁵⁾ '디'는 제약된 분포를 보이지만 他形態처럼 '-서'가 연결되어서 場所와 由來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 (19) a. 쭈무나문이 수눌언 밧디서 검걸을 매노랜 호난, (민담:112)
 (이집어명이 서로 꿈을 놓아서 밧에서 검을 매고 있으니까,)

14) 강정희(1983), op. cit., p.57.

15) 康貞姬(1980), "濟州方言의 處格 '-디'에 관한 一考察", 「方言」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 78.

- b. 밧겻더서 인기착을 하니, (구비 9-3:1013)
(밧에서 인기착을 하니,)
- c. 할아버지는 지붕우터서 실 넘어가는 사람들 부치러와, (민담:177)
(할아버지께서는 지붕위에서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 d. 도령을 몰우터서 느리왕, (민담:167)
(도령을 말위에서 내리워서,)
- e. 그 사람들은 뒤터서 보래단. (민담:41)
(그 사람들은 뒤에서 보다가,)

예에서 (19a)는 ‘디서’의 선행 명사가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밧이라는 지정된 공간 내에서 김을 매고 있다는 뜻이다. ‘밭에’라는 空間的 의미 기능이 ‘-서’가 연결되거서 [+장소], [+존재]의 의미자질을 지닌다. (19b)는 행위자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밧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니까 ‘디서’는 由來, 向進의 의미 기능이 있다. 그러나 밧이라는 일정한 공간 즉 處所를 나타낸다. (19c)는 할아버지가 지붕 위에서 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티’는 ‘우ㅎ’의 ‘ㅎ’의 영향이다. 여기서 처소의 형태는 ‘디서’이다. 단순히 위치만을 나타내는 ‘디’에 ‘-서’ 연결된 ‘디서’는 어떤 행동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어떤 행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나타낸다.¹⁶⁾ (19d)는 도령이 말에서의 행동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동작동사인 서술어가 쓰여서 ‘디서’는 [+장소]의 의미자질 외에 출발 즉 시발의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19e)는 ‘뒤에서 어떤 사건을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디서’는 [+장소]와 시간을 두고 머물러 있는 체류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반복되지만 처소의 ‘디’에 形態素 ‘-서’가 연결된 ‘디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發生하는 공간적인 장소와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 資格格 表示 形態素 ‘-서’

[+방향성] 또는 [+과정성]에 관계되는 格助詞 「로」에 직업(위)을 나타내는 선행 명사로는 資格의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로」에 존재를 뜻하는 ‘-서’가 결합됨으로써 ‘자격’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된다.¹⁷⁾ 그렇다면 그 쓰임을 보자.

- (20) a. 우리는 옥황궁녀롭서 문도령님이 인간에 느리사, (무속:354)
(우리는 옥황상제의 궁녀로시 문도령이 인간 세상에 내리와,)
- b. 세주태생으로서도 서울에 늘 출입 하여가지고, (구비 9-3:411)
(세수도 태생으로서도 서울에 항상 출입해서,)

16) 申昌淳(1979), “國語助詞의 研究(Ⅱ): 格助辭의 意味 記述”, 『국어국문학』 71, 국어국문학회, p.197.

17) 成光株(1980), op. cit., p.195.

- c. 우리 나라 그 지리로서 중원을 갖습니다. (구비 9-3:181)
(우리 나라 地理師로서, 中原에 갖습니다.)
- d. 제주도 사람으로서 성모를 믿는 사람이, (설화:863)
(제주도 사람으로서 聖敎를 믿는 사람이.)

共通語에서 '資格'의 의미를 지닌 格形態인 '(으)로서'는 濟州島方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고 위에 적은 몇 개의 예 정도이다. '로서'의 선행 명사는 [+사람]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신분이나 자격 등의 의미 기능을 지녀야 한다. 원래 '으로'는 方向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서'가 연결되어서 그 문장의 動作이나 屬性에 대해 주어진 자질을 뜻한다.¹⁸⁾ 다시 말하면 '(으)로서'는 '~의 자격을 가지고'의 뜻을 지닌다. 處格에서 다른 '-서'와는 좀 달리 資格格 表示 形態인 '로서' 자체가 자격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6) '-서'의 연결관계

副詞格 表示 形態에 연결되는 助詞는 거의 補助詞이다. 그러나 補助詞와의 연결이 統辭論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각가 補助詞 본래의 意味가 첨가된다.

- (21) a. 이문 뒤에 방죽이여. (구비 9-2:6)
(대문 뒤에는 방죽이네.)
 - b. 옥황인 부엌새, 땅 앞엔 도덕새, (무속:55)
(玉皇에는 부엌새, 땅 아래에는 도덕새.)
 - c. 우리집엔 모든 게 풍부하니 오랑 살라. (설화:110)
(우리집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니 와서 살아라.)
 - d. 가지 좋고 실 좋은 때엔, (민담:49)
(나뭇가지가 좋고 나뭇잎이 좋은 때에는.)
 - e. 모실에선 마흐레청을 막쟁 흥나, (민담:28)
(마을에서는 外兵을 막으려고 하지만.)
 - f. 나라이선 정려를 누리왔쑤다.(민담:99)
(나라에서는 旌閭를 내렸읍니다.)
 - g. 우리집의선 버치켜. (구비 9-3:31)
(우리집에서는 합쳤겠다.)
 - h. 그양 흥던 그다시 덴 매해에 혼 막작씩 크는 걸로 뉘었쑤다.(민담:252)
(그래서 거기서는 대나무는 매년 한 마더씩 크는 것으로 되었읍니다.)
- (22) a. 소금에도 밥이 들다.(구비 9-2:149)
(소금에도 밥이 달다.)

18) 安明哲(1985), "補助助詞 '-서'의 意味", 『國語學』14, 國語學會, p.497.

- b. 산 속에도 사람이 살고. (구비 9-2:30)
(산 속에도 사람이 살고,)
 - c. 또선 뒷턱날 츠냐이도 고종다리 조룸에, (민담 :136)
(다시 이튿날 서턱에도 고종다리 뒤에,)
 - d. 지랑 배꼈나도 꿩걸치 아니 후우다.(민담 :75)
(지방 문턱 바깥에도 꿩걸치입니다.)
 - e. 강남사도 날아 온 새야, (구비 9-2:101)
(강남에서도 날아 온 새야.)
 - f. 관이서도 손을 몬선 찢찢매는 관이랏쭈다.(민담 :28)
(관에서도 손을 못써서 찢찢매는 형편이었습니다.)
 - g. 그르후재 묵실에서도 그 총을 밭지 그리와도, (민담 :318)
(그후에 마을에서도 그 총을 밭고 싶어도,)
 - h. 가서 얻어 먹단 그디서도 비치단, (구비 9-3:32)
(가서 얻어 먹다가 거기서도 힘에 겨우니까,)
 - i. 제주 태생으로서도 서울에 늘 출입하여가지고, (구비 9-3:411)
(제주 출생으로서도 서울에 늘 출입해서,)
- (23) a. 서쪽이나 남쪽, 북쪽이서만 오거든, (설화 :582)
(서쪽이나 남쪽, 북쪽에서만 오면,)
- b. 오운장이 물 막은 섬안터지만 살아. (민담 :112)
(오운장이 물로 막힌 섬안에 서만 살아서.)
- (24) 내 저 사람들 앞이서랑 양반 행썰 호영, (민담 :40)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는 양반 행세를 하여서,)
- (25) a. 세우 집일 오랏쭈다.(민담 :23)
(세우 집을 왔습니다)
- b. 이 섬에 가면 김복이 시카, (구비 9-2:18)
(이 섬에 가면 김복이 있을까,)
- c. 산에 가면 살상귀소리, (민요 :75)
(산에 가면 장고 소리,)

예에서 (21)은 處格 形態에 ‘ㄴ, 는’이 연결된 경우인데, 원래는 相異 補助詞이며 단순히 어떤 사물을 서술할 때 쓰인다. (22)는 同一 補助詞 ‘도’가 연결된 문장이다. (23)은 단독의 의미를 지닌 ‘만’이 연결된 例文이다. (24)의 ‘랑’은 (21)의 ‘는’과 같은 의미이다. (25)는 格形態인 ‘르’이 연결된 경우인데 格形態는 이중 연결이 안되므로 여기서 ‘르’은 補助詞의 의미 기능을 한다고 본다. 向進과 도달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다음은 名詞類에 연결된 形態素 ‘-서’의 語源을 통해서 그 基本 意味를 알아 보겠다.

2.4. '-서'의 의미 기능

1) 존재의 主格 表示 形態인 '께서'는 그 起源을 '피+서'와 '거시다'의 부사형 '거서'¹⁹⁾에 두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그 기원 전체가 '거시다'로 부터 왔다는 說²⁰⁾도 있다. 현대에 와서 '께서'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處所(位置)의 의미도 지닌다고 생각한다. 主格 形態素에는 副詞格에 쓰인 形態素 '-서' 만큼 存在의 의미는 없지만 形態素 '-서'의 추출이라는 점에서 논의해 보았다. '께서'의 語源을 분명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 形態 자체에 존재의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본다.

2) 우리가 다른 處格 表示 形態素는 中世國語文法에서는 '애/에, 의/의, 예 등의 形態素가 通用되었으며 濟州島方言에 그 잔영이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면 본고의 핵심인 '-서'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시다'와 '시다'에 語源을 둔 '-서'는 在所副詞格 形態 '-에서'로²¹⁾로 굳어졌다는 입장과 '-에+서'에서 '에서'로 굳어졌다는²²⁾ 입장 등이다. 단체가 主格이 될 때는 "~에 있어"의 뜻에서 生成되었다고²³⁾고 본다. '서'는 지속상을 지닌 後置詞로²⁴⁾ 규정하는 입장과 格에 연결되어서 '위치, 출발,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補助助詞로²⁵⁾ 규정하는 입장이 共存한다. 格助詞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後置詞로 보며 의미 기능면에서는 보조조사(특수조사, 한정조사) 등으로 불리어 왔다. 다시 정리해 보면 處格 表示 形態를 중심으로 했을 때 名詞類에 연결되는 '-서'는 '있다'(존재)가 제일차적 의미가 되고 선행 체언이나 서술어의 특성에 의해서 '장소, 시발, 향진, 유래' 등의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단어처럼 그 意味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N에+서'의 形式에서 '-서'는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資格格 表示 形態인 '(으)로서'는 處格의 의미와는 다른 자격의 의미가 강하다. 濟州島方言에서 '이시다'는 '有'의 뜻이고, '시다'는 '在'의 뜻으로²⁶⁾ 사용되었다. 지금은 '시다'形이 우세하며 그 의미는 두 의미가 혼합되어서 '존재'의 뜻으로 여러 곳에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19) 安秉禧(1967), "韓國語發達史(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V-「言語·文學史」,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p. 183

留昌淳(1980), 「李朝國語史研究」, 二友出版社, p. 219.

李基文(1982), 「國語史概說」, 塔出版社(개정판), p. 216.

20) 安明哲(1985), op. cit., p. 485.

21) 李基白(1975), "國語助詞의 史的 研究", 「語文論叢」, 9·10, 慶北大學校, p. 49.

22) 李承旭(1982), 「國語文法體系的 史的 研究」, 一潮閣, p. 24, 李崇寧(198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p. 211.

23) 留昌淳(1980), op. cit., p. 231.

24) 安秉禧(1967), 李崇寧(1976, 1981), 洪允杓(1969).

25) 許 勳(1981), 金昇坤(1978).

26) 金洪植(1976), "語幹末 母音脫落에 대하여", 「논문집」8, 濟州大學, p. 39.

Ⅲ. 動詞類에 붙는 ‘-서’

앞 장에서는 명사류에 붙는 ‘서’의 形態와 의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동사류에 붙는 ‘서’의 의미 기능을 고찰하고 과연 명사류의 ‘-서’와 同一하게 취급할 수 있을지를 濟州島方言을 資料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活用語尾인 終結語尾와 連結語尾를 그 對象으로 한다.

3.1. 形態素 ‘-서’의 쓰임

우선 終結語尾에서 形態素 ‘-서’가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살핀 다음 連結語尾와 補助詞와의 연결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國語의 韻素 중에서 抑揚은 濟州島方言에서 終結語尾에서 나타난다. 즉 形態素 ‘-서’를 높이면 의문형이 되고, 낮추면 서술형이 되고, 빠르게 낮추면 명령형이 된다.

1) 敘述形 ‘-서’

- (26) a. 마당에 누엄 쾨령 들글명 올업서. (구비 9-3:336)
(마당에 누워서 밭명 들면서 웃고 있다.)
b. 할머니가 불을 췌담서. (구비 9-2:134)
(할머니께서 불을 췌고 있다.)
c. 아 가다가 보문 뭐가 들왕 오면서. (구비 9-2:620)
(아 가다가 보면 무엇이 따라 오고 있다.)
d. 미리 알아서. (구비 9-3:53)
(미리 알았다.)
e. 주인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구비 9-3:316)
(주인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f. 맛을 일흠을 삼 몰라서. (구비 9-2:724)
(맛을 이릅을 삼 몰랐다.)

例에서 (26a)는 행위자의 우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26b)도 할머니가 하는 행동의 지속을 나타낸다. (26c)는 따라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6d)는 ‘알고 있는 상태’가 완료됨을 의미한다. (26e)는 주인의 생각이 완료되어서 그 상태가 존속됨을 의미한다. (26f)는 ‘모르는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고 있다. (26)a, ~c.에서는 행위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지속됨을 의미하며 (26)d, ~f.에서는 행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의 지속

을 나타낸다.

2) 疑問形 ‘-서’

- (27) a. 먹었어? (무속:909)
(먹고 있소?)
- b. 어디 완 굼저도랜 허임서? (무속:514)
(어디 와서 술겨달라고 하고 있어?)
- c. 불이 뵈양서? (재방:367)
(불이 밝아지고 있는가?)
- d. 먹어나서? (무속:514)
(먹은 일이 있어?)
- e. 나라의서 질화서? (구비 9-3:83)
(나라에서 키워드냐?)

例에서 보면 敘述形의 ‘-서’와 그 쓰임이 같다. (27a)는 화자가 청자의 행위가 지속됨을 물어 보고 있다. (27b)는 말하는 상태가 지속됨을 (27c)는 ‘밝아 지는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에 (27d)는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는 지를 묻고 있다. (27e)는 기른 상태가 완료됨을 나타내고 있다. 즉 (27)a~c.는 현재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27)d.~e.는 이미 그 행위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3) 命令形 ‘-서’

- (28) a. 집의 오랑 놀당 갑서. (민요:340)
(집에 와서 놀다가 가시오.)
- b. 췌안이 점제호집서. (민담:24)
(平安히 寢座하십시오.)
- c. 나 치매통데래 키쳐들서. (민요:24)
(나의 치마속으로 들어오시오.)
- d. 상진님야 그리 카옌소서. (무속:233)
(上眞님야 그리신 마옵시오.)
- e. 어서 갈랑 고림소서. (무속:231)
(어서 그렇게 하시오.)

例에서 ‘-서’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존칭명령문의 발화문이다. 여기서 ‘-르-’은 상대자를 존대하는 形態素 즉 ‘대자존대’ 형태소²⁷⁾이며 ‘-서’나

27) 玄平孝(1985),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二友出版社, p.32.

‘소서’는 ‘-하-’와 연결되어서 존재의 명령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形態素 ‘-서’는 별다른 意味가 없다.

終結語尾 중에서 形態素 ‘-서’는 현재형인 경우 ‘狀態 持續’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형인 경우에는 ‘完了 持續’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그 基本 意味를 ‘존재’에 둔다면 本稿의 의도에 접근하게 된다. 命令形인 경우에는 ‘존재’의 의미 기능이 없다. 정리한다면 語末語尾 중에서 形態素 ‘-서’가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존재’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고 본다.

3.2. 連結語尾 形態素 ‘-서’

최 현배(1978)는 連結語尾를 이음법이라고 하며 그 하위분류인 매는꼴과 벌림꼴에서 形態素 ‘-서’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일매는꼴로서 ‘아(어)서’는 “까닭, 때문”의 뜻을 지니고, 때벌림꼴의 하나인 차례벌림으로서의 ‘-아(어)서’는 “가짐(지속), 수(方法)”의 뜻을 가진다. 차례벌림의 ‘-고서’는 “완료, 수(方法)”를 보이며 한때벌림의 ‘-면서’는 “동시”의 意味를 지닌다. 그러면 濟州島方言에서도 이러한 連結語尾들이 共通語에서처럼 그 形態와 의미 기능이 同一한가의 여부를 例文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1) ‘아서’²⁸⁾

- (29) 흑룡이 들어와서 나랑 깨일 싸우니, (선화:49)
(黑龍이 들어와서 나와 깨일 싸우니,)

예에서 싸운 이유가 흑룡이 들어온 때문인지 아니면 일부러 싸우러 오는 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아서’는 원인과 시간적 경과를 의미한다. 그런데 들어온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싸운 行爲가 일어났다면 이때의 ‘아서’는 ‘상관적인 계기성’으로부터 ‘원인발함’²⁹⁾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이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는 동작동사이다.

- (29)’ 흑룡이 들어와 (나랑 깨일) 싸우니.

에서 들어온 것과 싸운 것이 그 시간적 경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아’는 상태 지속 연결어미³⁰⁾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아’에 形態素 ‘-서’가 연결되면 ‘이유’의 의미 기능을

28) ‘아서’와 ‘어서’形이 있는데, ‘아서’를 대표형으로 표기하며, 설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29) 남기삼·부코르(1983), “論理的 形式으로서의 ‘-니까’구분과 ‘-어서’구분”, (고성환·남기삼, 「국어의 통사·의미론」), 塔出版社, p.26. 29)에서 ‘아서’는 원인과 계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論理的 形式의 의미기능을 지닌다고 본다.

30) 金昇坤(1978), “상태지속연결어미 ‘아’에 대하여”, 「동북어문·박사 학위논문집」, p. 210.

갖는다.

- (30) 나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좀 도와 줄려고 할거요. (실화:57)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좀 도와 주려고 한 것이다.)

예에서 '아서'는 불쌍한 이유를 의미한다. 主體의 입장에서 불쌍하게 여긴 것이 먼저이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든 것은 나중의 일이다. 이렇게 두 절의 主語가 同一한 'A어서 B'는 A가 B의 원인임을 나타낸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어서 B'는 論理的인 形式으로서는 원인밝힘³¹⁾의 의미 기능을 한다.

- (31)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생한테 이논 허래 왔소. (구비 9-2:179)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께 의논하러 왔읍니다.)

(30)과 마찬가지로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아서'는 선행절의 '완료'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任洪彬(1976)에서 보면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선생한테 이논 허래 왔소'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때 '아서'의 구문은 인과적 사건 구성이며 선행절은 후행절의 전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31)' 아는 사람이 없어 선생한테 이논하러 왔소.

이 예는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의논의 상대가 '선생 정도'이며 (31)에서는 '없는 원인' 때문에 그리고 의논의 상대도 선생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32) 사람이 농수를 지어서 그 남은 걸 먹는 버리지요. (실화:97)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그 남은 것을 먹는 법에입니다.)

예는 '농수를 지었다. 그러나 A가 아니고 B이다'로 변형 가능하다. '아서'는 "제기-한정적 연결"³²⁾ 語尾라고 부를 수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主語가 同一하고 서술어는 다르며 후행절에 부정형이 가능한 점(버리지가 아니요.) 등의 동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행위연속의 '-아서' 구문에³³⁾ 적용할 수도 있다.

31) 남기삼·부코프(1983), op. cit. p.4.

32) 서정수(1982), "연결어미 [-고]와 [-어(서)]", 「언어와 언어학」 18, 한국외국어대학교, p.67.

33) 이상복(1978),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아서'를 중심으로", 「말」 3, 연세대학교어학당, p.58.

- (33) 머 세가 모든 걸 바시 알긴 알고 있습니다.(선화 :258)
 (뭘 세가 모든 것을 보아서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는 話者가 어떤 사건을 보아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물론 선행절의 行爲가 후행절의 行爲보다 먼저 일어났다. ‘아서’는 狀態 持續의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이다.

- (34) 인부를 데려서 산을 까르자고 막 하니, (구비 9-1 :211)
 (일꾼을 데려서(고용해서) 산을 깎으려고 막 하니,)

예는 산을 깎는데 일꾼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과, 산을 깎기 위해서 일꾼을 산에 데리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34)’ 인부를 데리고 산에 가서 산을 까르자고 막 하니.

가 완전한 문장이다. 물론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먼저 일어났고 선행절이 후행절의 목적이 되기는 하지만 ‘데린’ 行爲와 ‘깎은’ 行爲가 完了된 상태로도 볼 수 있다. ‘아서’는 미약하지만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리고 두 行爲는 시간적으로 다르게 발생한다고 본다면 순차적 나열의 의미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제기의 의미 즉 행위 연속의 ‘아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 (35) 오늘은 선생을 만나서 사름뒤연 왔습니다.(구비 9-2:694)
 (오늘은 선생님을 만나서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예는 話者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었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서’는 ‘~한 후에’, ‘~하고 나서’의 뜻이며 ‘아서’ 구문이 후행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아서’ 대신 ‘니까’를 대입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 (35)’ 오늘 선생을 만나니까 사름뒤연 왔습니다.

이 예는 개인적인 판단 즉 선생을 만났으므로 사람이 되었다는 話者의 추리 판단을 말하고 있다. 이때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행위에 대한 話者가 생각해낸 이유가 된다.³⁴⁾ ‘아서’는 시간적으로도 선·후관계에 있지만 이유의 의미 기능으로 봄이 좋겠다.

34) 南基心(1978), “국어 연결어미의 화용론적 기능: 나열형 ‘-고’를 중심으로”, 『延世論叢』 15, 연세대학교, p. 4.

(36) 여호가 나와서 사람을 홀려와가지고 해칩니다.(구비 9-3:47)

(이우가 나와서 사람을 홀려서 배를 끼칩니다.)

예는 여우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나온다는 의미와, 우연히 나와서 해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자인 경우는 이유(원인)가 되지만 후자인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37) 뚝 동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구비 9-3:93)

(다른 마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 간 것이면 ‘아서’는 후행절의 결과에 대한 행위를 내포하지만 만일 다른 마을에 갔는데 우연히 공부하게 되었다면 ‘아서’는 선·후행절의 행위를 단순히 시간적 경과에 대한 행위의 연속으로 보인다.

(37)′ *뚝 동네에 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예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시적인 ‘고’의 意味를 지니지 않고, 계기성의 ‘아서’가 쓰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서’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38) 그것이 나타나서 그런 행동을 한다.(구비 9-3:74)

(그것이 나타나서 고와 같은 행동을 한다.)

이 예는 행위자의 출현과 행동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서’는 시간적 나열 즉 선·후행절의 행위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므로 동시적 나열의 의미가 있으며 ‘면서’로 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성의 ‘고’와는 좀 다르다.

(38)′ 그것이 나타나고 그런 행동을 한다.

(38)″ 그것이 나타나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예에서 ‘고’와 ‘면서’는 동시성을 띠지만 각각의 의미 특성 때문에 여기서는 ‘아서’ 대신 ‘면서’의 선택이 자유롭다.

(39) 춤 세주 복사로 보내어서 일이 그렇게 됐는데, (구비 9-3:204)

(성말 세주 敎使로 보내어서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예는 선행절의 행위에 대한 후행절의 결과가 ‘제주’인가 아니면 ‘목사’인가가 의문이다. 그러나 제삼의 인물을 목사로 보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로 해석된다. 행위의 결과는 제삼의 인물의 움직임에 있다. ‘아서’는 ‘~하고 난 후에’, ‘~고 나서’의 뜻을 지니며 선행절의 행위가 시간의 경과 후에 후행절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뜻도 지닌다. 다시 말하면 完了와 狀態 持續의 意味를 同時에 지니고 있다. ‘아서’의 意味를 간단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30)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관적인 계기성”에서 “원인밝힘”의 유도 과정으로 정의해 본다.

(40) 이곳 밭디 가서 2만히 숨어 있더니. (구비 9-3:210)
 (이웃밭에 가서 가만히 숨어서 있더니.)

이 예는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보기 위해서 이웃밭에 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아서’는 시간적으로 계기성을 띠며 선행절의 행위가 후행절의 행위를 한정하는 “계기-한정적 연결”의 基本 意味를 지니고 있다.

(41) 저 사람이 아파서 구신들릴 때, (구비 9-3:633)
 (저 사람이 아파서 귀신에게 혼였을 때.)

이 예는 보통 환자인 상태에서 홀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서’는 계기성과 인과성을 띤다. 단 선행절의 행위에 대한 후행절의 행위는 선택적이거나 후행절의 행위는 반드시 선행절의 원인에 의한다.

(42) 물우터 도령을 태우고 물을 이겨서 길을 가는데, (민담 :167)
 (말 위에 도령을 태우고 말을 이겨서 길을 가는데.)

(42)' 물을 이끄(며, 고, 편서) 길을 가는데,

(42)는 (42)'로 대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속되는 행위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타낸 ‘行爲 連續’의 意味를 띤다.

(43) 부지런히 글을 읽어서 인륜도리를 안 연후에, (민담 :268)
 (부지런히 글을 읽어서 人倫道理를 안 다음에.)

이 예는 부지런히 공부를 함으로써 인륜도리를 알게 되었다는 해석과, 공부를 하는 동안 인륜도리를 알게 되었고 그런 후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서’는 계기성의 ‘고’로 대치할 수 있다. ‘아서’나 ‘고’는 두 절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계기적 나열의 의미를 갖는다.

- (44) 무고하게 제주에까지 귀양오아서 살게 되었쑤다.(민남:281)
 (無故하게 제주도에까지 定配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예는 제주에서 살게 된 원인은 귀양 온 때문이다. 선행절의 행위에 의해서 후행절의 행위가 발생했고, 定配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을 내포한다. ‘아서’는 원인을 나타낸다.

- (45) 존식 하나 엇인 판자 살아서 썰 곳 엇고나, (무속:144)
 (自息이 한명도 없는 판자 살아서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 예는 話者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살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내용을 포함한다. 즉 삶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話者의 개인적인 이유이다. ‘아서’가 공인된 전제에 의한 원인을 말하는 것임에 비해 ‘니까’는 개인적인 판단, 추리에 의한 비유를³⁵⁾ 나타내므로 (45)가 성립한다.

- (45) 존식 하나 엇인 판자 살(니까, 아도) 썰 곳 엇고나,

이 예에서 ‘아도’의 ‘도’는 기대의 거부를 나타내는 상대성 접속어미로³⁶⁾ 보지만 補助詞로 봄이 타당하다. ‘아서’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닌다.

(29)~(45)를 통해서 ‘아서’의 쓰임을 보았다. 여기서 원인의 ‘아서’가 ‘아+서’로 분리가 가능한가? 위 예에서 ‘아’는 근본적으로 원인과 상태의 의미 기능을 가지며 ‘-서’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있다’의 의미를 共有한 상태로 본다면 어떨까? 두 形態素의 연결인 ‘아서’는 의미론적, 통사론적 특성에 의해서 ‘원인’의 의미 기능으로 굳어졌다고 본다. 다음 차례벌림의 ‘아서’에서 ‘아’는 후행절에 대한 선행절이 전제의 의미 기능을 내포하며 ‘-서’는 문제의 대상에 대한 존재의 정립을 요구하는 의미분절소임³⁷⁾ 보았다.

‘아서’는 [이유]의 의미 기능을 갖는데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완료] 또는 [제기]이고, 제기적인 ‘아서’는 [전제된 행위] 또는 [전제된 수단]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³⁸⁾ 理論에 따라서 의미 특성이 다양한 ‘아서’는 共通語와 濟州島方言의 形態 및 意味 기능면에서 동일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유니, 제기니 하는 말들은 ‘아서’를 하나의 단위로 보았을 때의 입장이다. 形態素 ‘-서’는 ‘존재에 바탕을 둔 ‘지속’을 기본 의미로 갖는다고 정의해 본다.

35) Ibid., p. 4.

36) 염선모(1985), “한성사연구”, (천기석외 14, 「국어통사론」, 진명문화사, p. 253.

37) 任洪彬(1975), “不定法 [이]와 狀態陳述의 고”, 「논문집」8-1, 국민대학교, p. 32.

38) 徐泰龍(1979), “國語接續文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40, 서울대학교국어연구회, p. 46, p. 67.

2) ‘멍(면)서’

- (46) 아마도 하루 밤인가 이틀 밤인가 자단 깨어나멍서라 영 문직아 보난 편편이라.
(구비 9 3:37)
(아마도 하루 밤인가 이틀 밤인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무 것도 없었다.)

이 예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는 시간적으로 보아서 거의 동시에 일어남을 보인다. 즉 깨어난 행위와 만져 본 행위가 동시적이다. 연결어미 ‘멍서’는 ‘멍’만으로도 의미 기능은 동일하다.

- (47) 것도 이상하다 허멍서도 어가라 터날 날줄 밭안, (민담:97)
(그것도 이상하다고 하멍서도 얼른 떠날 날자를 밭아서.)

이 예는 (46)과 마찬가지로 ‘멍서’는 共通語의 ‘면서’, ‘며’와 동일한 의미 기능을 갖는다. 즉 선행절과 후행절의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면 두 절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위의 예에 쓰인 ‘도’는 補助詞로서 문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성낙수(1983)는 ‘-으멍서’를 기본 형태로 삼고 ‘멍서, 멍, 뫼’은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로 삼고 있다. ‘멍서’는 동시나열의 의미 기능은 있지만 후행절의 행위가 끝날 때까지 상태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 (48) 이 놈의 귀가 그 집에 살면서 무엇을 주로 먹었느냐 허민, (설화:425)
(이 놈의 귀가 그 집에 살면서 무엇을 주로 먹었느냐 하던.)

이 예는 선행절은 후행절의 행위와 동시에 일어났지만, ‘면서’는 그 상태나 속성의 지속을 지니고 있다.

- (49) 나는 한상 푸나무 장사를 허면서 살자하니.(구비 9-3:624)
(나는 언제나 어린 나무 장사를 하면서 살려고 하니.)

이 예는 話者가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뜻한다. 즉 삶의 수단으로써 장사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면서’는 단순히 시간적 나열 중에서 동시 나열의 의미 기능 이외에

- (49) 장사를 해서 살자하니.

와 같이 ‘아서’의 의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면서’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내포한다.

- (50) (다서 북 앞이달 두들면식 춤년치움고, (구비 9-1:56)
 (거기서 북을 가져다가 두들면식 춤을 추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主語가 같은 경우는 ‘두들고 춤춘 것’이 동시 반복으로 나타나지만 主語가 다를 경우는 (‘우리’라는 단체로 볼 경우) 동시적 나열의 의미를 지닌 ‘고’와 동일하다. 위 예로 보아서 ‘고’의 의미 기능이 강하다 ‘-으면서’는 [동시] 또는 [진행중]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³⁹⁾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濟州島方言의 特異 形態인 ‘멍서’와 共通語의 ‘면서’는 의미론, 통사론적 특징에서 동일하다. 성 낙수(1983)는 공간적 나열인 경우 ‘멍’구문은 선·후행절의 主語가 다르므로 主語의 동일은 필연적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共通語에서 ‘고’와 ‘면서’의 의미 차이가 있듯이 濟州島方言에서도 ‘으멍’과 ‘으멍서’는 의미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멍서’와 ‘멍’에서 ‘-서’는 수의적인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으멍’이 현재 진행의 의미를 지니며 여기에 ‘-서’가 연결되면 그 상태 또는 속성이 지속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서’는 지속(존재)의 기본 의미를 지닌다고 정의해 보겠다.

3) ‘아둡(두)서’

- (51) 정지 구석에 놔둡서 나 먹을 술라근, (구비 9-3:36)
 (부엌 구석에 놓아 두면서 내가 먹을 술은.)

이 예는 술을 부엌에 놓아둔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가 먹을 술은 어떻게 하겠다는 話者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아둡서’는 ‘아 두면서’, ‘아 두고 있으면서’로 풀이된다. ‘아둡서’는 행위 연속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며 동시 나열의 의미 기능을 가진 ‘고, 며’로 대치하면

- (51)’ 정지 구석에 놓{고, *으며} 나 먹을 술라근.

과 같이 된다. 여기서 ‘고’ 문장이 가능한 것은 계기의 ‘고’와 그 의미가 동일하게 쓰였다고 여겨지며 ‘며’가 쓰이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둡서’ 자체가 존속(지속)의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면 ‘-서’의 추출이 용이할 것이다.

- (52) 앉아둡서 그자 분 뽏하는데, (구비 9-3:248)
 (앉아 있으면서 그자 분 것 뽏인데.)

39: Ibid., p.25.

이 예는 話者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음을 나타낸 문장이다. 앞에서 본 ‘멍서’는 동시적 나열을 나타내지만 ‘아둡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계기적 나열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고 본다. 그리고 선행절은 후행절보다 시제상 하나 앞선 상태이다. 濟州島方言에서는 ‘아둡서’에서 ‘-ㅁ-’은 현재 진행의 기능을 나타내며 ‘-서’는 존재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 (53) 무퉁에 사두서 보니까니, (구비 9-2:81)
(문앞에 서서 보니까.)

이 예는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보니까’와 ‘문 앞에 서면서 보니까’로 해석이 가능하다.

- (53)′ 무퉁에 사(서, 며, 면서) 보니까니.

가 성립한 것은 共通語에서 이 連結語尾가 지닌 의미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계기적 나열(행위 연속)의 ‘아서’, 동시적 나열의 ‘며, 면서’의 의미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계속해서 예문을 보자.

- (54) 가만히 숨어두서 보니, (구비 9-3:635)
(가만히 숨어서 보니.)

‘가만히’라는 부사의 영향으로 ‘숨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숨으면서 보니’도 가능하다. ‘아두서’는 共通語의 ‘며, 면서, 서’로의 대치도 가능하다. 또한 차례별립의 ‘며, 고, 아서, 면서’의 의미 기능과 같다.

- (55) 그더서 어울어겨두서 잠을 쫓쫓자는데, (민담 :139)
(거기서 어울려서 있으면서 잠을 새근새근 자는데.)

이 예는 어울려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잔 것인지, 잠을 자기 위해서 ‘어울린’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어두서’는 행위 연속의 ‘아서’의 의미 기능과 같다고 본다. 즉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두 절의 서술어가 용언인 점이다.

- (56) 술깨기 팽퉁뒤터 굶겨두서 사는데, (민담 :213)
(아무도 문대 뽕퉁 뒤에 숨겨 두고서 사는데.)

이 예에서 ‘어두서’는 ‘두고 있으면서’, ‘으면서’의 뜻을 지닌다. 그리고 ‘고’, ‘아서’.

‘면서’와 대치할 수 있다. 이는 이 형태가 제기성을 띠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면서’는 동시성보다는 ‘상태 지속’의 의미를 띠고 있다.

‘명서’와 같이 濟州島方言의 特異 形態인 ‘아뭉(두)서’는 ‘아 두면서’, ‘아 두고 있으면서’, ‘으면서’의 해석이 가능한데 ‘뭉’에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강하고 ‘두’에는 완료 존속의 의미가 강하다. 차례별립 중에서 순차적 나열의 의미 기능을 하는 ‘아뭉(두)서’에서 ‘-서’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역시 形態素 ‘-서’는 상태 지속(존재)의 基本 意味를 내포한다고 본다.

4) ‘다서’

(57) 대답도 안 하고 가말이 앉았다서 막 붙어가지고, (구비 9-3:241)

(대답도 안하고 가말이 앉았다가 막 붙어서.)

(58) 감 놀다서 아버지보고, (실화:249)

(가서 놀다가 아버지한테.)

(59) 자꾸 쌀을 날라다서 꼭꼭니, (구비 9-3:213)

(자꾸 쌀을 날라다가 꼭꼭니.)

이 예에서 ‘다서’는 ‘다가’로 풀이된다. 정 낙수(1983:60)는 전환형으로 명명하고, 최 현배(1978:605)는 그림꼴(중단형)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考察한 形態素 ‘-서’와 音相은 같지만 의미론, 통사론적 기능이 다르다. 굳이 분석한다면 ‘앉다, 놀다, 날라다’ 등의 동작동사의 어휘 의미의 영향으로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본다면 그것은 ‘-서’의 의미 기능으로 생각된다.

(57)에서 ‘앉아 있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58)에서 ‘노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59)에서 ‘쌀을 날리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등이다. 그러나 나열형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에서는 제외된다.

5) 기타 -‘가지고서’

(60) 당구신 살구신들이 복수들 홀라코 허여가지고서 못나가갸크음해서, (구비 9-1:207)

(堂鬼神 寺鬼神들이 복수들 하러고 해서 못나가갸 해서.)

(61) 저 관도 조병사라고 해가지고서 저 충청도 분인데, (구비 9-1:228)

(저 八道 조병사라고 해서 충청도 분인데.)

(62) 대미 혼 뒹 뒹(가지)고서 백 모살을 허거서 주었고나, (무속:36)

(쌀 한 되를 흰 모래를 섞어서 주었구나.)

예에서 ‘가지고서’는 ‘아서’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가지고’가 생략된 형으로 봄이 좋겠다. (60)에서는 이유, 원인의 ‘아서’, (61)에서는 단순한 나열의 의미 기능이 있다. (62)에서는 행위 연속의 ‘아서’이다. 여기서의 ‘-서’는 앞에서 考察했으므로 생략한다.

6) ‘-서’의 연결관계

- (63) 경여던 그 말을 돌아 보서는 큰 일이 나지, (구비 9-2:136)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이야기 해 놓아서 큰 일이 난다.)
- (64) 등땀이에 기름부른 옷을 입어선 복기 씌어단, (민담:205)
(등허리에 기름부른 옷을 입고 있어서 얼린 잡아다가.)
- (65) 장군으로 앓으던지도 막 사랑하였읍니다.(구비 9-2:277)
(장군으로 앓으던지도 막 사랑했읍니다.)
- (66) 복순 말말 주명서도, (민담:90)
(복순은 기함을 주명서도.)
- (67) 고경 보고서도 대상의 의기가 잇었던 모양이주. (구비 9-3:422)
(그것을 보고서도 대상의 義氣가 잇었던 것간다.)

예에서처럼 ‘아서’ ‘면서’ ‘고서’ 뒤에는 補助詞의 연결이 자유로우며 기본 통사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63)~(64)에는 相異 補助詞 ‘는’이 연결되었고, (65)~(67)에는 同一 補助詞 ‘도’가 연결되었다. 물론 格助詞의 연결만큼 連結語尾에는 그 연결 形態가 다양하지 못하다.

3.3. ‘-서’의 의미 기능

‘시다’에 語源을 둔 形態素 ‘-서’는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名詞類에 연결된 ‘-서’와 同一하다고 본다면 일단은 ‘존재’의 의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連結語尾 形態素 ‘-서’는 어떤 의미인가? ‘아서’ ‘명(면서)’ ‘아둡(두)서’ 등에서 ‘아’, ‘명(며)’, ‘아둡(두)’의 의미론, 통사론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形態素 ‘-서’가 연결되어도 단일 형태로 다룬 경향이 있다. 濟州島方言은 共通語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다. ‘원인(이유)’, ‘상태 지속’, ‘행위 연속’ 등의 의미 기능을 지닌 연결어미 형태는 문맥에서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 것이지만 길게 생각한다면 동사류에 연결되는 形態素 ‘-서’는 상태 지속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이것도 ‘존재’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中世國語에서 연결어미 형태에 ‘아서, 머서, 고서, 며서’⁴⁰⁾ 등이 있는데 여기서 ‘서’를 분리한다면 濟州島方言에서 ‘시다’의 副詞形인 ‘셔’와 同一하다. 濟州島方言에서는 ‘시다’형의

40) 허웅(1981), 『옛말본』, 과학사, p.74.

우세했고 ‘셔’가 ‘서’로 변모되어서 현재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3장에서 다룬 形態素 ‘-서’의 기원은 ‘시다’에 있으며 그 의미는 ‘존재’로 정의한다면 명사류에 연결된 形態素 ‘-서’는 ‘존재’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동사류에 연결된 形態素 ‘-서’는 ‘존재’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상태 지속의 의미로 변모되었다고 본다. ‘N(에)+서’ ‘V(아)⁴¹⁾+서’에서 ‘-서’의 기원은 동일하지만 현대로 내려오면서 선택 환경이 달라지고 부차적인 의미도 달라졌다고 본다.

41) ‘아’는 연결어미 형태 중에서 편의상 표기한 것임. ‘아+서’, ‘을(두)+서’ 등의 形態에서 ‘-서’앞에 연결된 形態임.

IV. 結 論

本稿에서는 格表示形態에 연결된 形態素 ‘-서’와 語末語尾에 연결된 形態素 ‘-서’의 의미론, 통사론적 특성을 고찰하고 그 기원의 同一性を 추출하는데 두었다. 지금까지 本論에서 논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존재의 主格表示形態인 ‘께서’는 그 기원을 ‘의+서’와 ‘거시다’에 둔다면 전자일 때에는 ‘-서’의 추출이 가능하나, 후자일 때에는 단일 형태이다. 어쨌든 ‘께서’는 [+존재], [+유정], [+처소]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處所格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곳에서처럼 ‘-서’의 분리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존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단제의 主語 기능을 하는 ‘에서’는 處格으로 다루었다.

2. 副詞格表示形態 중에서 處格表示形態로는 ‘에, 의, 예’의 혼용이 보이며 ‘에’의 쓰임이 보편적이다. 여기에 形態素 ‘-서’가 연결된 경우의 形態인 ‘에서, 이서, 의서, 예서’ 등은 그 기원을 ‘이시다’와 ‘시다’에 두는데, 濟州島方言에서는 ‘시다’ 형이 우세하다. ‘이서’ 형이든, ‘서’ 형이든 기본 의미는 ‘있다’ 즉 ‘존재’의 뜻이며, 形態素 ‘-서’의 의미를 여기에 둔다. 濟州島方言의 特異 形態인 ‘디서’도 處所의 ‘디’와 존재의 ‘-서’로 분리 가능하다. 資格格表示形態에는 ‘로서’가 있으며 造格으로 구분되어 왔다. 共通語이든, 方言이든, 이 形態는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며 이때의 ‘-서’에도 미약하지만 ‘존재’의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본다.

3. 동사류에서 단독 形態素로 실현되는 경우의 敘述形과 疑問形에서는 ‘-서’가 ‘있다’의 의미 기능을 지니지만 命合形인 경우 ‘-서’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있다.

4. 連結語尾인 경우 ‘아서’는 이유(원인)와 순차적 나열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명(면)서’, ‘아름(두)서’ 등은 그 形態는 다르지만 차례별림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여기서 形態素 ‘-서’를 의미면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존재’ 또는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 濟州島方言에서 ‘시다’의 사용이 우세한데 ‘-서’의 起原은 명사류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다’에 있음을 보았다. 동사류에 연결된 형태소 ‘-서’는 종결어미 형태소로 쓰인 경우에는 단독 형태소로 실현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연결어미 형태소 ‘-서’는 그 분리가 분명하지 않다.

5. 결국 명사류에 연결된 形態素 ‘-서’는 ‘존재’의 의미가 기본이며 處所와 狀態 持續의 의미로 변하는 단계이고(處格 중심), 동사류에 연결된 形態素 ‘-서’는 ‘존재’의 의미는 약해지고 狀態 持續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本稿에서는 명사류와 동사류에 붙는 形態素 ‘-서’의 同一성을 시도해 보았다. 앞으로 어떤 기회에 中世語와의 비교를 통하여 의미 분화 및 形態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共通語와 濟州島方言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研究해 보고자 한다.

형 태	인 결 관 계	
	형 태 소 '—시'	보 조 사
단독형태소	'—시'	∅
주격표시형태소	'계시'	∅
치격표시형태소	'에, 이, 의, 예, 너, +사	} + '는/도/만/랑'
자격표시형태소	'(으)로+사'	
종결어미	'—시'	∅
연결어미	'아(어)' '명(명)' '아름(두)'} +사	} + '는/도'

參 考 文 獻

〈論著〉

- 高永根(1983), 「國語文法の 研究: 그 어제와 오늘」, 塔出版社.
——·남기십(1983),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金敏洙(1980), 「國語文法論」, 一潮閣.
金昇坤(1978), 「韓國語 助詞의 通時的 研究」, 大提閣.
김영희(1984),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탑출판사.
南基心·高永根·李翊燮(1981), 「現代國語文法」, 啓明大學校出版部.
成光洙(1980), 「國語助詞의 研究」, 螢雪出版社.
申昌淳(1984), 「國語文法研究」, 博英社.
留昌淳(1980), 「李朝國語史研究」, 二友出版社.
李基文(1982), 「國語史概說」, 塔出版社(개정판).
李崇寧(1978),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1981),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李承旭(1982),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一潮閣.
李乙煥·李喆洙(1985), 「韓國語文法論」, 開文社.
李翊燮·任洪彬(1985), 「國語文法論」, 學研社.
任洪彬의 11人(1985), 「國語國文學研究史」, 宇石出版社.
최창렬의 4人(1985), 「국어통사론」, 진명문화사.
최현배(1978), 「우리말본」, 정음사.
허 응(1981), 「옛말본」, 과학사.
玄平孝(1985),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二友出版社.
Ramstedt, G. J., Penttiaalto권, (1985), 「알타이어형태론개설」, 민음社, 金東昭역.
Charles J. Fillmore(1983), 「격문법이란 무엇인가: 격문법이론 연구」, 을유문화사, 남용우의 3인역.

〈論文〉

- 姜根保(1972), “濟州島方言 ‘있다’ 活用考”, 「논문집」4, 濟州大學.
——(1977), “濟州島方言의 接尾辭研究”, 「논문집」9, 濟州大學.
——(1978),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 「논문집」10, 濟州大學.
康貞姬(1980), “濟州島方言의 處格 ‘-디’에 관한 一考察”, 「方言」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세주도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

- 金昇坤(1972), “國語助詞의 職能考”, 『국어국문학』 58·59·60, 국어국문학회.
- (1978), “상태지속연결어미 [아]에 대하여”, 『눈되 허 응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1980), “連結形語尾 「니까」와 「아서」의 話用論 再論”, 『蘭丁 南廣祐博士 華甲 紀念論叢』.
- 金宗澤(1978), “부사격조사「에」+ α 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집』 12, 大邱教大.
- 金洪植(1976), “語幹末 母音脫落에 대하여”, 『논문집』 8, 濟州大學.
- 金興朱(1978), “繼起의 ‘-고’에 대하여”, 『國語學』 5, 國語學會.
- (1978), “同時構文의 樣相”, 『國語學』 7, 國語學會.
- 南基心(1978), “국어 연결어미의 화용론적 기능: 나열형 ‘-고’ 중심으로”, 『延世論叢』 15, 연세대학교.
- 남기심(1978), “‘아서’의 화용론”, 『말』 3, 연세대한국어학당.
- (1980), “연결어미 ‘-고’에 의한 접속문에 대하여”, 『第一回 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閔賢植(1982), “現代國語의 格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9,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1982), “國語助詞에 대한 話用論的 研究”, 『冠岳語文研究』 7,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朴良圭(1972), “國語處格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27, 서울대학교국어연구회.
- 徐禎穆(1984), “후치사 ‘-서’의 의미에 대하여”, 『언어』 9-1, 韓國言語學會.
- 서정수(1971), “국어의 용언어미 [어(서)] : 변형·생성문법적분석”, 『한글학회 50돌 기념 논문집』, 한글학회.
- 서정수(1982), “연결어미 [고]와 [어(서)]”, 『언어와 언어학』 18, 한국의국어대학교.
- 徐泰龍(1979), “國語接續文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40, 서울대학교국어연구회.
- 成耆徹(1972), “語尾 ‘고’와 ‘어’에 대하여”, 『箕軒 孫洛範先生 回甲紀念論文集』.
- 성낙수(1983), “제주도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
- 송병학(1977), “한국어의 처소격”, 『논문집』 4-2,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 송석중(1982), “조사 ‘과, 를, 에’의 의미분석”, 『말』 7, 연세대한국어학당.
- 申昌淳(1975), “國語助詞의 研究(Ⅰ): 그 분류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67, 국어국문학회.
- (1979), “國語助詞의 研究(Ⅱ): 格助詞의 意味記述”, 『국어국문학』 71, 국어국문학회.
- 安明哲(1982), “處格 ‘-에’의 意味”, 『冠岳語文研究』 7,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1985), “補助助詞 ‘-서’의 意味”, 『國語學』 4, 國語學會.
- 安秉禧(1967), “韓國語發達史(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史』 高麗大民族文化文化研究所.
- 梁東暉(1973), “Inner and outer Locatives In Korean”, 『語學研究』 9-1,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 李琬鎬(1980), “접속어미 ‘-면’의 의미 기능과 그 상관성”, 「언어」 5-2, 韓國言語學會.
- 이근규(1973), “한국어 격조사의 재론”, 「韓國言語文學」 11, 韓國言語文學會.
- 이기동(1981),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의미”, 「한글」 173·174·한글학회.
- 李基白(1975), “國語助詞의 史的 研究”, 「語文論叢」 9·10, 경북대학교.
- 李男德(1982), “濟州島方言의 動詞 終結語尾 變化에 나타난 時相體系에 대하여”, 「논총」(이
대한국문화연구소), 40.
- 李男淳(1983), “樣式의 ‘에’와 所在의 ‘에서’”, 「冠岳語文研究」 8,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 이상복(1978),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아서’를 중심으로”, 「말」, 3 연세대학교어학당.
- 李崇寧(1976), “15世紀 國語의 變形語 ‘있다, 시다’의 발달에 대하여”, 「國語學」4, 국어학회.
- 任洪彬(1976), “不定法 어미와 狀態陳述의 比較”, 「논문집」 8-1, 국민대학교.
- 鄭雲澤(1983), “제주도방언의 격어미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
- 洪允杓(1969), “15세기 國語의 格 研究”, 「國語研究」21, 국어연구회.
- (1985), “助詞에 대한 경어법 표시의 변천”, 「國語學」 14, 國語學會.
- (1979), “국어의 조사”, 「언어」 4-2, 韓國言語學會.

Studies on Morpheme '-sə' in the Dialect of Cheju-Island

Moon Soon-deok

In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studies on case have been open actively since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was introduced after the Traditional Structural grammar. On one side, a connecting ending which has been called as a conjunctive mood is being studied in a viewpoint of Generative Semantics out of Morphology and in using a common tongue, morpheme '-sə' used with Noun class and Verb class is inclined to be dealt with in the same standpoint.

In this thesis I applied the theory and analytic method examined in the common tongue to the Dialect of Cheju-Island. And then I studied whether '-sə' used with Noun class, and '-sə' used with Verb class have a identity in morphology and semantic function.

The first chapter is a instruction in which a object of study, a subject of study and a precedent study is showed. In the second chapter was writren 1) morpheme '-sə' used alone, 2) '-sə' connected to auxiliary word of case—that is to say, there are two forms. One is the usage and semantic function of 'kkesə' used as a marker of subjective case and 'e(i, wi)sə' used as a(indicator of) subjective case in group. The other is the usage and semantic function of locative marker 'e(i,wi,je)sə', a Dialect of Cheju-Island 'tisə' and a case of qualification 'rosə'.

In the third chapter I examined, 1) morpheme '-sə' written alone, which is used as a closing ending, 2) and semantic function of '-sə' revealed through the usage of connecting ending forms such as 'asə' 'məḡsə' and 'atum(tu)sə'. The fourth chapter is the conclusion in which the content dealt with in the body is summarized and arranged.

In this thesis, I studied semantic–syntactic characteristic of ‘-sə’ connected to forms of case and ‘-sə’ connected to closing ending of word. And I drove out the identity of the both sources. The following is the main content of this thesis.

1. ‘kkese’, form of subjective indication used as an honorific title, cannot easily separate as it can in other places but it contains the meaning of ‘being’. And I dealt with ‘esə’ having subjective function in group as a locative.

2. Morphemes of locative is mixed in usage of ‘e, i, wi, je’ and ‘e’, one of them, is generally used. Here I traced source of morpheme ‘-sə’ connected to ‘e’ to ‘sita’.

3. When ‘-sə’ is written alone in verb class ‘-sə’ has the meaning of ‘being’ in predicative and interrogative but it does not have the same meaning in imperative.

4. When ‘-sə’ is written as a connecting ending we can separate morpheme ‘-sə’ from ‘a(a) sə’, ‘məŋ(mjən) sə’, ‘atum(tu) sə’, in a semantic aspect and it means ‘being’ or ‘continuance of state’.

5. In consequence, ‘-sə’ connected to Noun class has the meaning of ‘being’ in the root and the meaning changes into the meaning of locative and the meaning of state and continuance–locative is said to be the point. ‘-sə’ connected to Verb class declines in the meaning of ‘being’ and clearly reveals itself in the meaning of state and continuance.